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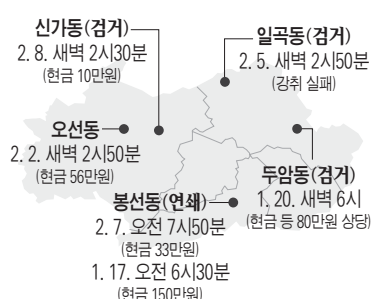
경찰 비웃는 강도 편의점 또 털렸다

광주서 올 6건 ... 직통 '긴급전화' 무용지물

광주지역 편의점이 또 털렸다. 연초 순찰활동 강화에 나선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편의점 강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부재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심야시간대에도 대부분 종업원 혼자서 현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방범 시스템 개선과 '예방' 위주의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편의점 강도사건 발생 현황



특히 농기구를 훔기로 택한 남부 편의점 '연쇄 강도' 사건은 반경 500m 이내에서 3주 간격으로 잇따라 터지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왜 하필 편의점'-'긴급전화'도 무용지물 = 편의점은 각종 강력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야간시간대에 현금을 취급하지만, 종업원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편의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직통으로 연결된 '긴급전화'도 업주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또 '긴급전화'는 종업원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경우 경찰의 오인출동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방범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는 현재 전

체 편의점 546곳 가운데 긴급전화 설치율은 93%(508곳)에 이르지만 강도 검거 등과 직결된 경우는 거의 없다.

강도가 기습을 부리면서 편의점 업계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광주지역 편의점 수는 모두 480곳. 편의점 업주들은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강도까지 극성을 부려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강도 왜 못 잡나 = 경찰의 수사 상황과 움직임이 고스란히 노출된 게 큰 원인이다. 강력범죄들은 외근 형사와 의경들의 방범순찰 시간을 교묘히 피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편의점 강도사건은 지난해 2월 광산경찰에서 처음 발생했지만, 다른 경찰서는 '남의 동네' 일이었다. 관내가 아니라

는 점 때문에 공조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정기 인사를 전후해 기강이 해이해진 점도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검거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경찰력을 운용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중교통 이용해요” 한국폴리텍V대학(화장 정진서) 교수와 직원 등 40명은 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광주시 '대중교통 그림지도'를 나눠주며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폴리텍V대학(화장 정진서) 교수와 직원 등 40명은 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광주시 '대중교통 그림지도'를 나눠주며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벌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50배 과징금”

금품제공자 3년이상 징역

처방이나 납품을 대가로 제공되는 '뒷돈'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처방이나 납품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는 있지만,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수수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형법상의 뇌물죄를

준용,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를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받는 쪽인 의사와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종사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쌍벌(雙罰)' 조항이 들어 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사와 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수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신고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은밀한 사적관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며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해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완도 양식장 선박

프로펠러 5개 도난

하룻밤 새 완도의 한 섬 선착장에 정박 중인 양식장 관리선의 프로펠러(Propeller·선박추력장치) 수개가 갑작스럽게 사라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 사이에 완도군 금당면 가화리 선착장에 정박 중인 권모(55)씨의 1.65t급 양식장 관리선의 프로펠러가 갑자기 사라지는 등 15시간 만에 양식장 관리선 5척에서 프로펠러 5개가 도난당했다.

또 프로펠러 잠금장치가 절반쯤 풀린 양식장 관리선 2척도 발견됐다. 당시 선착장에는 모두 30여 척의 양식장 관리선이 정박 중이었다.

해경은 30여 척 중 5척의 프로펠러 또는 프로펠러 부품업체가 종교교로 팔아넘기기 위해 훔쳐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어린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나원침 (8025) 김장두



광주서 초등생 실종

광주의 한 초등학교 남자 어린이가 사흘째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H아파트에 사는 고모(8·광주 Y초교 1년)군이 “확원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키 110cm에 몸무게 30kg의 고모는 실종 당시 과관색 스키점퍼와 검은색 스키니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주차 차량 손가방 전문털이범 '달미'

○광주지역 공연장·골프장·공원·예식장 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현금 등이 든 손가방을 전문적으로 훔친 50대 절도범이 경찰서형.

○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정모(51)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7시30분께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내 주차장에서 이모(아·49)씨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문을 갠 뒤 안에 있던 현금 등이 든 손가방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13회에 걸쳐 72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4년여 전 절도죄로 무기출소한 정씨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운전자가 승용차에 손가방을 두고 가는 차량만을 골라 범행.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기 달인’ 이용호씨 옥중사기 이번엔 변호사도 당했다

20억 편취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숙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06년 9월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인 C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는 데 10억원을 투자하면 인수기업 지분의 30% 등을 주겠다”고 숙여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주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인 2007년 4월에는 사범가 J씨를 만나 “사업

재가 자금 10억원을 빌려주면 결재가 확실한 상장회사의 5억5천만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담보로 주겠다”고 숙여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씨는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1월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일부 확정 판결이 재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2007년 3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한편 이씨는 “상장기업 인수는 C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이후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며, 어음할인에 보증을 선 사실은 있으나 사업가 J씨한테서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술값강요 전남대 의대 교수 검찰 기소유예·무혐의 처분

광주지역 형사3부는 8일 강요 등 혐의로 입건된 전남대 의과대 A 교수에 대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공의들에게 20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 상당의 유혹주점 술값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그러나 전남대병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주사제를 수백 차례에 걸쳐 사용해 모두 4천14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A 교수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남대병원에서 경직해제되고, 조교수 및 주임교수 보직 등에서 직위해제됐다. A교수는 또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무등빌딩임대

4층부터 빌딩까지, 5층부터 고급주택까지, 사계절 쾌적하고, 1인용 주차장 100여개, 동·건물관리비 낮음, 최첨단 보안시스템 도입

무등빌딩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 8층 / 9층 / 10층 / 11층 / 12층 / 13층 / 14층 / 15층 / 16층 / 17층 / 18층 / 19층 / 20층 / 21층 / 22층 / 23층 / 24층 / 25층 / 26층 / 27층 / 28층 / 29층 / 30층 / 31층 / 32층 / 33층 / 34층 / 35층 / 36층 / 37층 / 38층 / 39층 / 40층 / 41층 / 42층 / 43층 / 44층 / 45층 / 46층 / 47층 / 48층 / 49층 / 50층 / 51층 / 52층 / 53층 / 54층 / 55층 / 56층 / 57층 / 58층 / 59층 / 60층 / 61층 / 62층 / 63층 / 64층 / 65층 / 66층 / 67층 / 68층 / 69층 / 70층 / 71층 / 72층 / 73층 / 74층 / 75층 / 76층 / 77층 / 78층 / 79층 / 80층 / 81층 / 82층 / 83층 / 84층 / 85층 / 86층 / 87층 / 88층 / 89층 / 90층 / 91층 / 92층 / 93층 / 94층 / 95층 / 96층 / 97층 / 98층 / 99층 / 100층

임대문의 062-222-0527

전통주 제조 연수생 모집

우리 전통주를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모집기간 2010년 2월 1일

수업기간 2010년 3월 1일 ~ 8월 1일 (4개월 15주)

230-7700

아이엘리시아

출산차, 파르센, 새이나라 경품 코팅 및 정사 (300명 한정)

소포(정사) : 1인씩, 12인씩, 24인씩, 30인씩
대포(정사) : 40인씩, 60인씩, 100인씩

062-671-1199